

한국 초등 음악 교육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6·25 전후 시기까지

Historical Perspectives on Elementary Music Education in Korea: After Liberation to the Post-Korean War Period in the 1950s

문경숙**

Kyung-suk Moon 

초록 본 연구는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전후 기간 한국 초등 음악 교육의 초기 형성 과정을 국제적 맥락에서의 연관성 및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역사적 연구를 통해 1차 사료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연대기적·주제별 접근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격변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구 국제적 음악 교육 조류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수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며, 둘째, 해외 교육사절단의 기록 자료는 외국 교육전문가의 관점에서 당시 초등 음악 교육 현장을 관찰·평가한 측면에서 그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끝으로, 1953년 브뤼셀 세계 최초 국제 음악 교육 회의 개최 및 세계음악교육협회(ISME)를 창설한 유네스코는 세계 음악 교육의 진원지로서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회의 결의안은 한국 초등 음악 교육의 발전상 평가에 지표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음악 교육 역사, 음악 교육 현대사, 초등 음악 교육, 유네스코, 국제 음악 교육

Abstract This study historically examines the early formation of contemporary elementary music education in Korea, from the 1945 liberation to the post-war 1950s, focusing on the connections and interactions within an international context. Using historical research method, it analyzes materials through chronological and thematic approache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ven amid the severe crisis situations of this turbulent period, the high interest in and active adoption efforts toward Western international music education are worthy of positive evaluation; Second, the observation records and reports from education missions of the U.S. and foreign aid organizations hold high value as historical materials; Lastly, UNESCO's hosting of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music education conference in 1953 and its establishment of the ISME mark the foundation of global music education, and the conference's resolutions can serve as an indicator for evaluating the status of Korean elementary music education.

Key words: music education history, contemporary, elementary music, UNESCO, world music educatio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ing of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e academic year 2025.

** First author, E-mail: ksmoon@gjue.ac.kr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27 Ungjin-ro, Gongju-si, Chungnam,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6, Reviewed (Revised): 17 April 2026 (4 May 2026), Accepted: 15 May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1945년 8·15 해방 직후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까지의 기간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격변기였다. 약 3년간의 미군정 통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이 이 압축된 시기 동안 잇달아 일어났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치·사회적 재편은 초등 음악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동인이 되었다. 이 기간은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도입함으로써, 현대적 교육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 전환기였다. 이에 따라 초등 음악 교육 역시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재구조화되었으며,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음악 교과로 태동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 군정기부터 1950년대 전후 복구 기간까지의 시기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 서구의 음악 교육을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국내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시기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군정 종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교차하던 1948년, 문교부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교육사절단에는 음악 공교육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되었다. 특히 국제전쟁으로 확대된 6·25 전쟁은 국제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Char et al., 2013). 즉 한국 교육재건을 위한 유엔(United Nations, UN)과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교육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195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외국 교육사절단의 방한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는 유네스코의 주관하에 1953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 음악 교육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세계 음악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국제적 지표가 제시되었다. 전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한국의 음악 공교육의 역사적 맥락에서 미 군정기부터 국가 교육과정이 최초로 제정 및 시행된 1950년대까지의 기간은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이 태동하고 제도적 토대가 형성된 출발점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 초창기 역사에 관한 연구는 미 군정기에 발행된 초등 음악 교과서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Kim & Choi, 2022; Kwon, 2014; Shin, 2004)와 실태 분석 연구(Moon, 2014), 그리고 6·25 전쟁 시기의 음악 교과서 분석 연구(Shin,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음악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책 관련 국내 사료를 중심으로 초등 음악 교육의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 사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국제 교류가 활발해진 이 격변의 시기에, 초등 음악 교육과의 연관성을 국제적 맥락에서 살펴본 역사적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전후 기간까지를 연속적인 역사

적 흐름의 맥락에서 조망하고 특히 국제적 흐름 속에서 당시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연관되고 상호 작용이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미 군정 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후 복구 기간까지 지속된 미국 교육사절단의 방한 활동과 한국 대표단이 파견된 유네스코의 국제 음악 교육 회의 이벤트 등과 관련된 사료를 발굴하고, 당시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의 국제적 연관성과 상호 작용을 규명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그 역사를 조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초등 음악 교육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향후 음악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 군정기부터 1950년대 전후 복구 기간까지 정부는 어떠한 교육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초등 음악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이 시기 미국과 해외 원조 기관이 한국의 교육 재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들의 관점에서 당시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였는가?

셋째, 이 시기 국제적 맥락에서 세계 음악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한국과는 어떠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졌는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6·25 전후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역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초등 음악 교육의 초기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적 범위는 1945년 8·15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6·25 전후 시기까지로 한정하였다. 이 기간은 미 군정기(1945.9.11.~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6·25 전쟁(1950.6.25.~1953.7.27.) 및 전후 복구기로 이어지는 격변기이며, 한국에서 현대적 초등 음악 교육의 제도적 초석이 구축되고 또한 서구와 직접적 접촉을 통한 국제 교류가 태동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 수집 및 분석은 해당 시기의 1차 자료에 기반하며, 2차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자료로는 미 군정기 및 대한민국 초기 문교부 발행 문서, 국내 신문 기사, 유네스코의 공문서와 회의 보고서, 미국 음악교육가협회(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MENC)의 「음악교육가저널(Music Educators Journal, MEJ)」에 실린 기고문 및 국제 음악 교육 회의 관련 보고 기사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여 당시 사실 관계를 교차·검증하였다.¹⁾ 한편, 2차 자료로는 한국 현대사와 교육사 관련 서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발간 자료 등을 참조함으로써 해당 시기의

국내외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대기적 흐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주제별 접근을 병행하였다. 연대기적 흐름의 경우 미 군정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시기, 1950년대 전후 복구 시기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시기별 세부 주제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적 흐름과 맥락 속에서 한국 초등 음악 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연관성을 가지며 상호 작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한국 대표단이 파견되었던 1953년 유네스코 브뤼셀 회의 관련 사료들의 내용을 개최 배경, 회의 내용, 주요 성과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사료인 미 군정기부터 전후 복구 기간까지 파견된 미국 및 해외 원조 기관의 교육사절단 관찰 기록 및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 교육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한국 초등 음악 교육에 대한 관찰 내용과 제안된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Ⅲ. 미 군정기~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 초등 음악 교육의 형성 과정

1. 미군정의 실시와 민주주의 교육 체제로의 전환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이어진 미 군정기 동안, 일제 식민지 교육 체제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 음악 교육도 일제 강점기와 뚜렷이 구분되는, 서구 민주주의 교육 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제로 재정립되었다.

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여 한국 현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 이념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46년 3월 심의회가 채택한 교육 이념을 위한 교육 방침에 <Table 1>에서와 같이 예술 교과로서 음악의 의미와 가치가 강조된 측면이다. 즉 이 교육 방침을 살펴보면 ‘승고한 예술’ 교육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Oh, 2014, pp. 382-383).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 교육관이 반영된 현대 초등 음악 교육의 실질적 태동을 시사한다. 이러한 음악 교육의 방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교육법에 그대로 계승되어 반영되었다. 즉, <Table 1>에서와 같이 1949

1) MENC는 1998년에 ‘MENC: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에는 MENC를 삭제하고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NAfME)’로 개칭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 시기가 명칭 변경 이전이므로 MENC를 사용하였다.

<Table 1> Content related to elementary music education stipulated in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and the Educ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yp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1946)	Education Act of Korea (December 31, 1949)
Educational philosophy	Based on the founding principle of 'Hongik Ingan,'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is to cultivate individuals with complete character and a strong patriotic spirit, fostering citizens for a democratic nation.	Education, under the principle of 'Hongik Ingan,' aims to enable all citizens to achieve personal fulfillment, develop independent living skills, and possess the qualities of citizenship,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nat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shared prosperity for humanity.
Educational policy	To cultivate noble character by enhancing the appreciation and creativity of sublime arts.	To foster aesthetic sensitivities, enabling the appreciation and creation of sublime arts, the enjoyment of natural beauty, and the effective use of leisure time, thereby promoting harmonious and cheerful living.
Purpose and goals (elementary)		To develop fundamental understanding and skills in music, art, and literature, which contribute to making human life cheerful and harmonious.
Subjects (elementary)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science, arithmetic, health, music, art, home economics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natural science, arithmetic, health, music, art, practical arts
Time allocation	Grades 1-6 (uniform across all grades: 80 hours/year; 2 hours/week)	Grades 1-6 (uniform across all grades: 80 hours/year; 2 hours/week)

년 교육법에는 미군정의 교육 방침과 동일하게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한다는 표현으로 문구가 추가되었다. 더 나아가 1949년 교육법은 중등학교와 구분된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해 주었다. 초등 음악 교과의 목적 및 목표는 미술, 문예와 함께 명시되어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악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라고 진술되어 있다(Oh, 2014, pp. 382-383). 이는 생활과의 맥락과 연계가 중시된 당시의 진보주의 교육관이 초등학교 예술 교과의 목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군정 당국은 단선형 신학제를 채택함으로써 초등학교 수업 연한을 6년(6-11세)으로 규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단선형 학제는 그대로 계승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Table 1>에서와 같이 음악은 미 군정기부터 정부 수립 이후까지 초등학교 8개 교과목에 편제되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주당 2시간(연간 시수

80시간)으로 동일하게 배정되었다는 것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1946, p. 13).

이 밖에도 미군정은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통해 1946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초·중등학교 각 과목의 「교수요목집」을 발간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1946). 그러나 당시 초등 교수요목은 국어, 산수, 이과, 사회생활 등 4개 과목에만 제정되었고, 음악 교과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음악과의 교수요목 미비는 당시의 상황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정 당국은 교수요목 수립보다 교과서 편찬을 더 시급한 과제로 판단했으며, 1945년 12월 학무국 개편 시 교육과정 전담 부서 없이 편수과가 우선 설치된 사실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한다(Kim, 1995, p. 397).

이와 별개로 음악 교과서 편찬은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관계 주요일지’ 기록에 따르면, 1945년 12월 6일 “소학교(小學校) 음악 교재 연구 단체로서 학교 음악 연구회 발족”이라 명시되어 있다(Korean Mothers Association, 1977, p. 59). 또한 1946년 1월 22일자 당시 서울신문 기사에는 “「음악」 교과서 초등용 상·중·하 세 권도 인쇄 중이라 한다”라는 보도가 있다(Seoul Newspaper, 1946, p. 2).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초등 음악 교과서의 편찬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편수과 신설과 함께 1946년 초 32명의 학자가 교과서 편찬 사업에 투입되면서 작업이 활기를 띠었다(Oh, 2014, p. 374). 구체적인 전체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초등 음악 교과서 편찬을 위해 당시 <학교 중>을 작곡했던 김메리의 회고록에는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해방이 되고 나자 이번엔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 문교부에서는 최현배, 박창해 선생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 교과서 편수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나는 현제명, 김성태 선생들과 음악 교과서를 만들게 되었다(Kim, 1996, p. 99).

초등 음악 교과서를 포함한 편수 작업은 1946년 2월, 군정 개시 5개월여 만에 완료되었으나, 극심한 용지난과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인쇄와 공급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Table 2>는 군정청 문교부가 1946년 「문교행정개황(文交行政概況)」에 발표한 당시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실적을 나타낸 표로, 초등 교과서 부분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음악 교과서가 국어, 공민, 역사, 산수와 같은 주요 과목들과 발행 부수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으나, 함께 발행되었다는 사실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1946, p. 42).

<Table 2> Textbook publication and supply records announced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s 「Overview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elementary textbook section)

Textbook name		Number published	Number distributed
First steps in Hangul		1,073,326	1,072,360
Korean history textbook		77,143	67,379
Elementary Korean language textbook	Upper	850,000	87,349
	Middle	679,500	427,304
	Lower	268,000	229,873
Elementary civics textbook	Upper	415,000	401,660
	Middle	382,000	340,224
	Lower	464,000	268,848
Songbook	Upper	204,941	205,238
	Middle	285,500	187,384
	Lower	297,000	144,732
Arithmetic primer		924,900	417,415

동 문서에는 당시 교과서 발행은 임시 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1946, p. 42). 이처럼 「노래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음악 교과서도 임시 교재로서 상(1, 2학년용), 중(3, 4학년용), 하(5, 6학년용)로 구분되어 출판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미군정 종료 무렵인 1948년 6월 30일 발표된 교과서 발행기록을 살펴보면, 음악 교과서의 발행은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종전 제목과 동일한 「노래책」으로 출판되었으나, 1-6학년 각 학년별로 구분되어 발행되었다(Oh, 2014, pp. 375-376).

2. 새 교육 운동 추진과 미국 교육사절단 내한

미군정 2년 차를 기점으로 문교부와 교육계는 듀이(J. Dewey)의 교육 철학을 수용하여 전통 교육을 쇄신하려는 ‘새 교육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문교부 주도의 신교육 연구협회 창설 등 제도적 기반 조성과 오천석을 통한 이론적 정초(定礎) 작업은 이후 다양한 학술·연구 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교육론의 체계적인 연구와 사회적 확산이 가속화되었다(Korean Mothers Association, 1977, p. 400).

특히, 미군정 종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교차하던 1948년, 문교부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 교육사절단은 새 교육 운동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 학자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중앙교원연수원(teacher training center)을 개설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중심으로 교원 재교육을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된 훈련소에는 총 18명의 미국 교수진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1차(1948.8.3.~9.24.)와 2차(1948.10.1.~11.25)에 걸쳐 각각 8주간의 집중 연수를 실시하였다(Kim, 1995, p. 196).

음악교육분야에서는 조지아 주립 여자대학(Georgia State College for Women) 교수이자 MENC 남부지부 회장을 역임한 노아(M. Noah)가 파견되었다. 그는 제2차 연수 기간 중 연수원 음악분과 자문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당시의 한국 체류 경험은 MENC의 「MEJ」 1949년 5월호에 “한국에서의 임무(mission in Korea)”라는 제목의 기고문으로 게재되었다(Noah, 1949, pp. 14-16).

동 기고문에서 노아는 서울 청계초등학교 정세문 교사의 5학년 음악 수업을 혁신적 교수법의 모범 사례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정세문의 수업은 단순한 가창 지도를 넘어 리듬 밴드 연주, 창작, 지휘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수업 방식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교사 중심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아동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며, 당시 초등 음악 교육 현장에 반영된 새 교육 운동의 실천적 양상을 보여주는 초등 음악 수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노아는 MENC의 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음악 교육 방안을 한국에 도입할 것을 문교부에 제안하였다.

- (1)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없이 전국의 모든 아동에게 각자의 흥미와 역량에 부합하는 음악적 경험 및 훈련을 제공할 것; (2) 음악 교수법의 개선과 교육 기자재의 충분한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3) 학교 음악 교육을 문화·여가 생활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하여, 이를 지역 사회 및 가정으로 확장할 것; (4) 유의미한 음악 사업을 국가 환경 개선의 긍정적 기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장려 및 지원할 것; (5) 성인을 위한 음악 교육 기회를 증진할 것(Noah, 1949, p. 16).

IV. 6·25 전쟁 시기:

해외 교육 원조와 음악 교육의 국제적 교류

1. 전시 교육과 UNKRA의 교육 원조 사업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초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주요 교육 정책의 시행이 답보 상태에 놓였으나, 정부는 1951년 2월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하여 교육과정을

재개하였다. 이어 문교부는 같은 해 3월 ‘연구학교 규정’ 시행을 통해 현장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고, 19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초등교육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질 기반의 붕괴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은 노천학교 운영이 불가피하였으며, 해외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50년 6·25 전쟁을 계기로 유엔은 한국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을 창설하였다. UNKRA는 물질 지원을 넘어 민주주의 교육 철학 및 체제의 이식을 통해 한국 교육의 성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Hwang et al., 2004, p. 105). 특히 교육사절단 파견 사업은 1952년 9월부터 1953년 6월까지 10개월간 약 700명의 교원 연수를 수행하며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과 민주적 교육 행정 및 교수법 개선을 견인하였다(Korean Mothers Association, 1977, p. 409). 또한, 이들의 건의는 1953년 3월 9일 문교부와 대한교육연합회 공동으로 중앙교육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UNKRA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교육 재건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오하이오 주립대 사범대학장 코드렐(D. Cottrell)박사를 단장으로 한 6인의 사절단은 1952년 9월부터 9주간의 현지 조사를 거쳐, 1953년 2월 『한국의 교육 재건(rebuilding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보고서(Cottrell, 1953)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교육 재건」 보고서는 전쟁 직후 교육 실태와 원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국 교육을 진단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전후 교육 재건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2019, p. 10).

한편, 동 보고서는 초등교육의 거시적 방향 설정에 집중하여 음악 등 특정 교과목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음악 교과를 명시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 수 6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교감직을 폐지하고, 확보된 예산을 정규 수업 또는 음악, 미술, 가정, 실기 등 특수 교과 교사 채용에 활용해야 한다”(Cottrell, 1953, p. 28). 이는 당시 학교 예산이 음악과 같은 예술 교과목의 수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다.

2. 유네스코: 최초 국제 음악 교육 회의 개최

1) 한국 참가와 개최 배경

국가 재건에 필수적인 선진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유네스코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1950년 6월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가입 직후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해 유네스코 활동이 지연되는 난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유네스코가 195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세계 최초의 국제 음악 교육 회의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은 브뤼셀 회의 보고서로 발간된 「교육에서의 음악(music in education)」에서 확인된다. 이 보고서의 부록은 참가국과 참가자 명단을 수록하고 있으며, 29개국 회원국에서 총 314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기록에는 한국도 회원 참가국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제명(Hyun, Chai-Myung), 임원식(Lim, Won Sik), 광리민(Kowang, Lee Min) 등 3인의 이름이 참가자 명단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UNESCO, 1955, pp. 331-335). 이와 같은 파견 기록은 이 시기에 한국이 서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음악 교육의 국제 교류 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쳐 나갔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실증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브뤼셀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는 1945년 창설 초기부터 음악을 ‘세계 평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이라는 설립 이념을 실현할 실천적 기제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추상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음악 교육의 실행 영역을 ‘전문 음악 교육(professional music teaching)’, ‘일반 음악 교육(music as a part of general education)’, ‘성인 음악 교육(music in adult education)’의 3대 범주로 체계화하여 음악을 통한 민주적 가치 확산과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였다(MENC, 1946, p. 28).

이 중 일반 음악 교육 분야에서는 민요와 현대 음악을 활용한 문화 다양성 및 국제적 이해 증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 단계는 아래와같이 다양한 국가의 민요를 통해 타문화를 학습하도록 하고, 현대 음악의 수용과 국제적 시각 함양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국가의 민요를 부르는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어린이들이 여러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현대의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음악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현대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 계획에서는 항상 국제적인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MENC, 1946, p. 28).

한편, 예술 분야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해 유네스코는 MENC에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일반 교육에서 음악의 역할을 다루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MENC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구체적으로 1947년 유네스코는 MENC의 부사무총장 롤러(V. Lawler)를 유네스코 예술·문학 부서의 임시 책임자로 위촉하였으며, 이후 롤러는 1952년 국제 음악 교육 회의 준비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Izdebski, 1983, pp. 46-47).

또한, 유네스코 산하 기구로 1949년 1월 28일에 창설된 국제음악협의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IMC)는 브뤼셀 회의 개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IMC는 1950년 여름, 파리에서 국제 음악 교육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를 발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퀴벨리에(M. Cuvelier, 벨기에, IMC 설립자 겸 사무총장), 쇼어(B. Shore, 영국, 음악 교육 디렉터), 월터(A. Walter, 캐나다, 토론토 왕립음악원장), 루세르(R. Loucheur, 프랑스, 음악 교육 디렉터), 롤러(미국, MENC 부사무총장) 등 각국의 주요 음악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MENC, 1951, p. 17).

준비위원회는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제 설정, 연사 섭외 및 발표 주제 선정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하였다. 제1차 회의는 1951년 7월 29일~8월 3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 제2차 회의는 1952년 3월 28~29일, 필라델피아 벨뷰-스트랫퍼드 호텔(Bellevue-Stratford Hotel)에서 MENC 격년 총회 직후에 개최, 제3차 회의는 1953년 1월 29-31일, 파리에서 개최, 마지막 제4차 회의는 1953년 6월 29일 브뤼셀 회의 개막 직전에 개최되어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MENC, 1951, p. 17).

준비위원회는 국제 음악교육회의의 핵심 목적을 세계 각국의 음악 교육 철학 및 방법론을 공유하고, 일반 교육 내에서 음악의 위상을 제고하며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두었다. 이에 따라 회의 의제는 전문 연주자 양성 과정을 배제하고 일반 음악 교육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학교와 대학 교육, 지역 사회 음악, 교사 양성의 세 가지 주요 분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단순한 학술 논의를 넘어 교수법 시연, 국가별 교육과정 비교 분석, 공연 및 자료 전시 등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담당할 상설 국제기구의 설립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MENC, 1951, pp. 17-18).

운영 및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각국 정부와 전문 단체를 통해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사는 유네스코와 IMC의 공동 주최 및 벨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1953년 6월 브뤼셀의 팔레 데 보자르(Palais des Beaux-Arts)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MENC, 1951, p. 18).

2) 브뤼셀 회의 진행 및 주요 내용

준비위원회의 3년에 걸친 치밀한 기획과 준비 끝에, 1953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11일간 브뤼셀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음악 교육 회의가 개최되었다. ‘청소년 및 성인 교육에서 음악의 역할(the role and place of music in the education of youth and adults)’이라는 주제로 열린 브뤼셀 회의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첫 시도였다. 브뤼셀 회의의 주요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음악 교육의 철학, 방법론 및 자료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교육의 일환으로서 음악 교육의 위상 제고; (2) 일반 교육 내에서 음악 교과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 (3) 본 회의가 국제적 이해 증진과 인류의 유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4) 상설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후속 회의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UNESCO, 1955, pp. 9-10).

회의는 크게 전체 세션(plenary sessions)과 실무위원회(working commissions)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전체 세션의 핵심은 모든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초 강연을 청취하고 논의를 공유하는 데 있었다. 회의장 내 좌석 배치는 유네스코 의전 절차에 따라 국가명 알파벳순으로 지정되었으며, 각 테이블에는 해당 국가의 공식 대표단이 착석하였다. 회의의 공식 언어는 불어와 영어로 지정되었고, 각 세션 시작 전 대표단 테이블에는 번역된 발표 자료가 배포되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도왔다. 토마스(J. Thomas) 유네스코 문화국장이 환영사와 개회사를 맡아 진행하였다(Lawler, 1953, pp. 25-26).

<Table 3> Lectures in the plenary sessions of the Brussels conference (1953)

Sessions	Topics	Speakers
1	Music education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Domingo Santa Cruz (Dean of the Faculty of Fine Arts, Santiago, Chile)
2	The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its aims and objectives	M. Georges Duhamel (L'Academie Francaise)
	The background and aim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education	M. Marcel Cuvelier (Secretary-General of the IMC)
3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in Europe	Eberhard Preussner (Professor, 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Salzburg Mozarteum in Austria)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on the American Continent	Arnold Walter (Director, Royal Conservatory of Music, Toronto, Canada)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in Asia	V. Raghaven (Music Academy, Madrad, India)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in Japan	Tomojiro Ikenouchi (Professor, Tokyo University)
4	New trends in music education	Leo Kestenberg (Principal, Music Teachers Training College, Tel Aviv, Israel)
	New trends in music education	Vanett Lawler (Associate executive secretary, MENC)
	The role of folk music in education	Sir Steward Wilson (Administrative director, Royal Opera House, London)
5	Proposed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ciety of music education	Charles Seeger (U.S., whose paper was read by Jack Bornoff, executive secretary of the IMC)
6	Report: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resolutions	Arnold Walter (Rapporteur of the conference)

전체 세션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의 기조 강연에는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강연 주제는 국제적 맥락에서의 음악 교육 이해와 철학 그리고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음악 교육 현황과 음악 교육의 새로운 동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으며, 음악 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정보 교류와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Lawler, 1953, p. 26).

실무위원회는 <Table 4>와 같이 A, B, C 세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로 ‘학교와 대학 음악 교육’, ‘공동체 음악 교육’, ‘음악 교사 교육’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Lawler, 1953, p. 27).

<Table 4> Working commissions of the Brussels conference (1953)

Commissions	Chairmen	Areas
A	Domingo Santa Cruz (Dean of the Faculty of Fine Arts of the University of Chile, Santiago)	Music education i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B	Egon Kraus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German School Music Educators)	Music education in the community
C	Charles M. Dennis (Director of music, San Francisco, California)	The education of the music teacher

초등 음악 교육 분야의 논의는 위원회 A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전 세계 초등 음악 교육의 현황을 중점으로 다루었으며, 서양과 아시아권의 음악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미국, 독일,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영국 등 총 9개국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자국의 초등 음악 교육 현황 및 교육 과정 사례를 발표하였다(UNESCO, 1955, pp. 97-139).

아래 <Table 5>는 브뤼셀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중 초등 음악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UNESCO, 1955, pp. 320-321).

무엇보다도 일반 교육에서 음악은 소수 재능인을 위한 특수 영역이 아닌,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일반 교육의 필수적 토대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증시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점 등은 결의안에 서구 민주주의 교육관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민요의 교육적 가치와 교과서에 세계 음악을 수록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은 국제적 이해 증진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합창 및 오케스트라 조성을 통한 협력 정신 배양의 강조는 전인적 인격 성장을 위한 사회성 및 인성 함양이 강조된 것으로

<Table 5>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Brussels conference (1953)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elementary music teaching)
• The elementary school should provide progressive musical teaching calculated to develop the children's taste for good music and their natural sensitiveness, and simultaneously to stimulate in them an active contribution to this education. • The master should be first and foremost a guide, who should encourage and respect the pupil's spontaneous musical manifestations. As at the nursery school, musical apprenticeship should be adapted to the nature, needs and interests of the children. • Room should be made for such authentic musical folklore as has a real educational value. • As a step towards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the school song book should contain songs selected from all over the world.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hythmical training, to training of the ear and to the education of musical awareness from the very start of the pupil's introduction to music. • Every effort should be made in the elementary school, as at the other stages of education, to foster among the children a spirit of co-operation, so as to encourage the formation of choirs, orchestras, etc.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브뤼셀 결의안은 세계 음악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제적 표준으로 제시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3) 브뤼셀 회의 결과 및 성과

유네스코는 1953년 브뤼셀 회의의 결과를 1954년 제17차 국제 공교육 회의에 보고하여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았다. 동시에 최종 보고서를 단행본 「교육에서의 음악」이란 제목으로 출간하였다(UNESCO, 1955). 이 문헌은 회의에 참여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논의를 집대성한 것으로, 학교 급별 교육과정, 사회적 역할, 교수법, 교사 양성 등에 관한 위원회 분과별 보고서와 세계음악교육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ISME) 설립 제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문헌은 당대 국제 음악 교육의 현황과 비전을 조망할 수 있는 현대 음악 교육 역사의 핵심 사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특히 ISME의 창설은 브뤼셀 회의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브뤼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ISME의 설립 취지는 음악 교육을 세계인권선언과 연계하여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격상하고, 서구 예술 음악 중심의 위계에서 벗어나 동서양 및 민속 음악을 포괄한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데 있었다(ISME, 1986, p. 78). 아울러 ISME의 창설은 유네스코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음악 교육의 정치적·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을 정립할 수 있는 국제적 음악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V. 전후 1950년대 초등 음악 교육의 전개

1. 초등 음악 교육의 제도적 토대 구축

전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던 초등교육 정착 노력은 휴전 직후 시행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이 계획의 성과로, 해방 직후 136만 명 수준이던 초등 취학 아동 수는 1960년에 362만 명으로 증가하여, 학령 아동수의 약 95.3%에 달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단기간 내 완전 의무교육 달성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Yu, 2006, pp. 353-355).

이러한 교육의 양적 팽창은 교육 내용의 질적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확립으로 이어졌다. 1954년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과 1955년 문교부령 제44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공포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수립되는 역사적 기점이 되었다. 당시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아동의 경험과 생활을 중시하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을 표방하였다.

1950년대 3차에 걸쳐 파견된 미국 교육사절단은 대체로 미국 진보주의 교육이념을 1차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Kang, 2002, p. 176). 특히, 1954년 9월부터 1955년 6월까지 10개월간 파견된 UNKRA 제3차 미국 교육사절단의 「한국 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지침서(curriculum handbook for the schools of Korea)」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교육과정의 원리(principles)’, 2부 ‘실천(practices)’, 3부 ‘교육과정에 필요한 변화(needed curriculum changes)’로 나뉜다. 음악 부문은 3부의 제8장 ‘한국을 위한 예술(the arts for Korea)’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해당 부문은 당시 조지 피바디 사범 대학(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의 로빈슨(M. Robinson) 교수가 집필했다. <Table 6>은 동 보고서의 음악 교육 부분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American Education Team, 1954, pp. 144-156).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로빈슨이 음악을 소통의 언어로 규정하고, 모든 아동이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초등 음악 교육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그는 기존의 가창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감상, 기악, 창작, 신체 표현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음악 활동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제1차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체계는 <Table 7>과 같이 기능 연마(가창, 기악), 감상, 창작, 음악의 생활화 등으로 구성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p. 5).

<Table 6> Excerpt on elementary music education from UNKRA's American education team report 「Curriculum handbook」 (1954)

Key points
• Linguistic attributes and cultural context of music: Music is not an isolated art form but a language of communication, and every child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enjoy it. Similar to language acquisition, music learning is influenced by the 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the child is raised. • Importance of vocal training and tone quality: The natural and free singing attitudes of Korean children reflect the achievements of home and school education. However, excessive volume should not be considered a measure of musical achievement. To protect children's vocal organs and cultivate aesthetic sensitivity, they should be guided to maintain a soft tone. • Systematization of music appreciation education: Music appreciation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in the lives of Korean people. Providing background knowledge about composers and their works during appreciation activities can enhance interest. Utilizing media such as phonographs can promote interest in high-quality music. • Educational use of creative activities: Some classes incorporate original composition into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While compositions are primarily created by teachers rather than students, this approach is considered a timely effort that appropriately reflects the educational context of the time. • Instrumental activities and teaching aids production: Rhythm band activities are the most beneficial and engaging for lower-grade students. Older students can create instruments using recycled materials, while simple percussion instruments like rhythm sticks or wood blocks can be used all grades. • Physical expression and sense of rhythm: Physical expression, including dance, is essential for fostering a good sense of rhythm and contains potential for developing children's creativity. • Orientation toward an integrated curriculum: The success of a music education program depends on its connection with other subjects and integration into regular class schedules. It also relies 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musical growth proportional to each learner's interests and aptitudes. • Social value of arts education: The goal is not to train every child to become a professional musician, but to universally provide opportunities to cultivate proper artistic attitudes and appreciation skills. Arts and music stimulate children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ir surroundings, contributing to national development on both patriotic levels, just like other fields of education.

<Table 7> The objectives of elementary school music curriculum presented in the first music education curriculum (1955)

The objectives of the first elementary school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the general objectives of music education, the goals of the music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s are broadly categorized into skill development, appreciation, creation, and the integration of music into daily life. 1. Skill development: Teach simple monophonic songs, rounds, choruses, and playing instruments. 2. Appreciation: Create an environment for enjoying good music and teach methods to appreciate it. 3. Creation: Teach the basic theories of music and train in ear training to develop the ability to compose music. 4. Integration of music into daily life: Cultivate attitudes and habits to express musical rhythms and emotions through physical movements such as rhythmic responses, dance, and physical activities. Promote a cheerful and wholesome school life, family life, and social life through music.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가창뿐만 아니라 기악, 감상, 창작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네 번째 목표로 제시된 음악의 생활화에서는 학생들의 일상 생활 및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리듬 반응, 무용, 체육 등의 신체적 동작을 통하여, 음악의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p. 5). 이는 음악의 생활화 목표 내용과 앞서 제시된 <Table 6>의 로빈슨의 제안 사항 중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예술 교육(social value of arts education)’의 필요성과 음악 학습에 있어서 ‘신체 표현(physical expression) 및 리듬 감각(sense of rhythm)’의 중요성이 강조된 측면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American Education Team, 1954, pp. 155-156).

2. 국제 원조 통한 교육 재건 사업

6·25 전쟁 직후, 한국 사회는 ‘원조 경제’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교육 재건 역시 국제 기구의 지원을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특히, UNKRA와 유네스코는 물리적 교육 인프라 복구에 주력하는 한편, 1954년 제8차 유네스코 총회를 기점으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교육·문화·기술 분야의 포괄적 지원을 공식화하였다. 무엇보다 UNKRA와 유네스코의 지원에 힘입어 설립된 교과서 인쇄 공장은 초등 음악 교육의 물적 기반을 다지는 데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인당 국민 소득 67달러의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인쇄 시설과 용지 부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10만 달러)와 UNKRA(14만 달러)의 재정 지원으로 건립된 국정교과서 인쇄 공장은 교과서의 적기 공급을 실현함으로써 초등교육 정상화를 이끌었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2014).

당시 1955년 12월에 발행된 초등 음악 교과서(5학년)의 뒷면 판권지에는 “금번에 유네스코와, 운끄라에서 인쇄기계의 기증을 받아, 국정교과서 인쇄전속공장이 새로 생겼는바, 이 책은 그 공장에서 박은 것이다”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1955, p. 47). 이러한 기록은 전후 국제 사회의 물적 지원이 한국 초등 음악 교육 재건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료로서 역사적 함의를 지닌다.

아래 <Table 8>은 상술한 5학년 음악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Table 8> Organization of the contents presented in the 5th grad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 (1955)

Activity areas	Lesson themes	
Singing	Patriotism	<Children's song> <Geumgang mountain> <Song of the nurse sister> <General choi young> <Mugungwha> <Honor of the disabled veterans> <Hwarang warriors> <Our wish> <Letter>
	Nature	<Spring has come> <Sparrow> <Cuckoo> <Mountain breeze, river breeze>
	Family	<Twin chestnuts> <Sim cheong>
	Lullaby	<Song of the nurse sister> <Lullaby song>
	etc.	<Pond> <The lighthouse keeper> <Thinking of my hometown>
Playing Instruments	Playing joyful ensemble (instruments: violins or harmonicas, triangle, snare drum, castanets, bass drum, tambourine, piano or organ)	
Appreciation	String instruments, march music story, Beethoven's life	
Creating	Creating rhythms, creating melodies	

교과서는 가창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곡의 노래를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곡들의 주제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가 가장 많고(9곡), 다음으로 자연(4곡), 부모·형제애(2곡), 자장가(2곡) 등의 순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친구(1곡), 등대지기(1곡), 고향(1곡) 등을 소재로 한 곡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창 활동 외에도 비중은 매우 작지만 ‘즐거운 합주’의 기악 활동, ‘현악기 연주도’, ‘행진곡 이야기’, ‘베토벤의 생애’를 주제로 한 감상 활동, ‘리듬 짓기’, ‘멜로디 짓기’ 주제의 창작 활동 등도 포함되어 있다(<Table 8> 참조). 이는 1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포괄적 음악 활동 제시 방향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 한국 음악 교육의 국제 교류 활동 확대

1953년 브뤼셀 국제 음악 교육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현제명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초대 위원으로서 한국 음악 교육의 국제 교류 활동을 이끄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2014, pp. 320-321).²⁾ 그의 적극적인 국제 교류 활동은 당시의 MENC 저널 「MEJ」에 발표된 기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EJ」의 1957년 4-5월호에는 “한국의 MENC (the MENC of Korea)”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MENC, 1957, pp. 89-90). 이 기사에서는 한국음악교육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2) 현제명은 음악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음악가협회장 자격으로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초대 위원(1954.1.30.-1955.12.19.)에 위촉되었으며, 이후 제2대(1955.12.20.-1958.9.28.) 및 제3대 위원(1958.9.29.-1960.7.29.)을 연임하였다.

현제명이 MENC에 보낸 서신 전문이 소개되었으며, 그는 1956년 4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MENC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MENC를 모델로 한 한국음악교육연구회(1978년 한국음악교육학회로 개칭)를 창설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ISME 회원국으로서의 가입 및 참여 활동에 대한 MENC의 협력 요청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현제명이 MENC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음악 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외에 「MEJ」 1958년 10-11월호의 ISME 총회에 대한 보고 기사에서도 현제명의 국제 교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Lawler, 1958, pp. 15-20). ISME 총회는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 Denmark)에서 1958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 개최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Figure 1]은 해당 기사에 실린 사진으로, 맨 왼쪽에 위치한 현제명이 패널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ure 1] Photograph of Hyun, Chai-Myung attending as a panelist in a plenary session at the 3rd general assembly of ISME. Far left to right: Hyun, Chai-Myung (Korea); Diana Tsan (Formosa); Egon Krause (Germany); Salah Cherif (Algeria); Elizabeth May (U.S.A.); Candida Bautista (Philippines) (Lawler, 1958, Requoted from p. 18).

이 보고 기사에서는 한국을 포함 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명의 참가자 소식을 전하였다. 현제명이 패널로 참여한 회의의 주제는 ‘국제적 이해 증진에서의 동양 음악의 역할(music of the eastern world as a means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었다. [Figure 1]에서와 같이 현제명 외에도 포르모사(현재 대만), 독일, 알제리, 미국, 필리핀 출신의 음악교육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였다(Lawler, 1958, p. 18).

아래 <Table 9>는 이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에 대한 결의 사항을 초등 음악 교육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요약한 것으로, 음악 교육의 제도적 안착, 음악 교사 교육, 민속 음악의 수집과 보존 등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Lawler, 1958,

p. 20). 이 중 특히 일반 교육에서의 음악 교과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주당 2회 이상의 음악 수업 의무화를 세계 음악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명시한 결의 사항은 현재와 미래의 초등 음악 교육 방향 모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able 9>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3rd general assembly of ISME (1958)

Summarization
(1) All schools, primary, secondary, conservatory, college and university should be provided with proper equipment for music education classes; (2) music in schools should be provided at all levels of education; there should be not less than two periods each week for instruction in music; (3)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ublish and collect folk music. Inherent in this effort is the necessity to preserve original folk music; (4) a closer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and music directors of radio and television stations and music educators in schools, colleges; (5) effort should be directed to the preparation of well qualified music teachers i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6)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by general school administrators, directors of schools of music and conservatories to the facilities provided for the training of teachers for the elementary schools whose responsibilities necessarily include instruction in music.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국제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상호 작용이 있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의 초기 역사를 조망 해 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방 직후 미군정 통치 기간(2년 11개월)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새로운 국가 교육 방향성을 모색하던 시기에 발발한 6·25 전쟁과 전후 복구 기간에 음악 교과서 인쇄까지도 해외 교육 원조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었던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구 중심의 국제적 음악 교육의 조류에 대한 음악 교육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수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으로는 미 군정기 교육사절단으로 방한한 노아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새 교수법을 배워 적용한 정세문 교사의 초등 음악 수업 시연, 전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국제 음악 교육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MENC를 모델로 한 전문음악교육단체(한국음악교육연구회)의 창립, ISME 총회 참석을 통한 국제 교류 활동의 확대 등은 이 같은 평가를 실증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둘째, 음악 공교육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 군정기 교육사절단으로 방한 한 노아가

MENC의 저널에 기고한 보고 기사, 전후 기간 한국의 교육 재건을 위해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파견한 교육사절단의 보고 기록 및 교육과정 지침서 등은 외국 교육전문가들의 관점에서 한국 초등 교육 현장을 관찰하고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한 기록으로써, 그 사료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해방 직후부터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쟁 등의 격변기로 특징 지워 지는 이 시기에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재구성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유용한 사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네스코는 국제적 맥락에서 현대 음악 교육의 태동과 확산을 이끈 핵심적 주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최된 1953년 브뤼셀 국제 음악 교육 회의가 갖는 역사적 함의는 크다. 유네스코는 이 회의를 통해 국제적 이해와 협력 증진 차원에서 일반 교육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그 위상을 높였다. 즉 일반 교육에서 음악 교과목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하여 결의·선포함으로써 세계 음악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세계음악교육협회(ISME)의 창설도 브뤼셀 회의의 최대 성과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세계 음악 교육의 진원지로서 그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평가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1953년 유네스코 브뤼셀 회의의 결의안, 1958년 ISME의 총회 결의안에 제시된 권고 사항은 한국의 초등 음악 교육이 걸어온 지난 70여 년 간의 발전상을 평가할 때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 교육이 모든 어린이의 보편적 권리이자 일반 학교 교육의 필수 교과, 주당 최소 2회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삼아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초등 음악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현재와 미래 음악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References

- American Education Team (1954). *Curriculum handbook for the schools of Korea by the American education team, 1954-55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and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Centr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Char, H. S., Lee, I. H., Han, Y. W., Kang, K. H., Lee, J. Y., Yu, Y. I., Nam, S. U., Kim, Y. H., Kim, Y. H., So, B., Kim, Y. B., Jeon, S. I., Park, H. J., Ahn, B. J., & Joo, M. G. (2013). *Korean modern history*. Sejong Institute.

- Cottrell, D. P. (1953). *Rebuilding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inal report*.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79163?poslnSet=1&queryId=4ef8f44f-595b-40f2-b3e8-a662f33df349>
- Department of Education (1955). *Music 5*. Korea Textbook Printing Co., Ltd.
- Department of Educ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6). *Curriculum guidelines for each subject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hosun Educational Books.
- Department of Educ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6). *Overview of education administration*. Ministry of Education.
- Hwang, W. C., Kim, S. Y., & Ko, C. K. (2004). *Public education: Ideals, systems, and reforms*. Wonmisa Publishing.
-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1986).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7(1), 78. <https://doi.org/10.1177/025576148600700125>
- Izdebski, C. (1983). Vanett lawler: Her contribution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mus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1), 45-48. <https://doi.org/10.1177/025576148300200110>
- Kang, I. G. (2002). *A study on 'the new educ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The elementary curriculum in the 1950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D. G. (1995). *Education during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Moonumsa.
- Kim, E. J., & Choi, Y. S. (2022). A study on elementary music textbook Ch'odŭng Noraech'aek in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2), 21-46.
- Kim, M. R. (1996). *The school bell rings*. Hyundae Aesthetics Publishing.
- Korean Mothers Association (1977). *30 years of Korean education*. Korean Youth Culture Research Institute.
- 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2014). *From the foundation of Korea's development to a global leader in sharing: 60 years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54-2014*. 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 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2019). *A study on the retrospect and prospects of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membership in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 Kwon, H. G. (2014). Research on the music educatio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53, 5-35.

- Lawler, V. (1953). The world friendship through music. A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usic education at Brussels, Belgium. *Music Educators Journal*, 40(2), 25-31. <https://doi.org/10.2307/3387914>
- Lawler, V. (1958). Glimpses from Copenhagen. A report of the third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45(2), 15-20. <https://doi.org/10.2307/3388913>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Music curriculum standard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1955~1997)*.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Moon, K. S. (2014). An investigation on Korean music education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3), 21-46.
-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46). UNESCO and music. *Music Educators Journal*, 33(2), 28. <https://doi.org/10.2307/3388403>
-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51). Planning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38(2), 17-18. <https://doi.org/10.2307/3387573>
-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57). The MENC of Korea. *Music Educators Journal*, 43(5), 89-90. <https://doi.org/10.2307/3388283>
- Noah, M. (1949). Mission to Korea. *Music Educators Journal*, 35(6), 14-16. <https://doi.org/10.2307/3387039>
- Oh, C. S. (2014). *History of modern Korean education* (Revised ed.). Kyoyookkwahaksa.
- Seoul Newspaper (1946).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national history and civics textbooks to schools, page 2, column 1*. Retrieved August 23, 2025, from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33387908
- Shin, G. H. (2004). A study on elementary music education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The Journal of Education*, 23, 127-143.
- Shin, G. H. (2005). A study on elementary music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syllabus period. *The Journal of Education*, 25(1), 3-24.
- UNESCO (1955). *Music in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ole and place of music in the education of youth and adults, Brussels, 29 June to 9 July 1953*. Retrieved June 5, 2025,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26900?posInSet=2&queryId=af48606a-bef7-488f-90ae-991dcbf3bb8c>
- Yu, Y. I. (2006). *Reevalua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Yonsei University Press.